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2024년 4월부터

통상의 의료제공체제로 이행합니다

~일상속의 감염예방~

코로나 19나 인플루엔자 등의
감염증에 주의합시다.

예방은 되어 있나요?

손 씻기와 손 소독, 유증상시 마스크 착용
및 환기는 잊지 않습니다.



무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발열 등의 증상이 있을 때에는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도록** 합시다.



준비 되어 있나요?

컨디션 불량에 대비하여 **시판약이나
일용품등을** 비축해 둡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의료제공체제 (2024년 4월 이후)

의료제공체제

	현행	2024년 4월 이후
입원	확보병상을 중점화(중증·중등증Ⅱ, 감염확산시에 한해 확보)하고, 환자 수용체제를 확대	확보병상에 의한 것이 아닌 통상적인 의료제공 체제로 대응
외래	대응 의료기관 유지, 확대	일반 의료기관에 의해 대응

특례 재정 지원의 종료

	현행	2024년 4월 이후
환자	치료약의 자기부담 의료보험의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 자기부담 (3000 ~ 9000엔)	의료보험의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통상적인 청구 부담
	입원비의 자기부담 최대 1만엔의 보조	의료보험의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통상적인 청구부담
의료기관	병상확보료 · 대상 환자는 「중증자·중등증Ⅱ」 · 감염이 진정되고 있는 단계에서는 교부하지 않는다	폐지
	진료보수 실태를 바탕으로 점수를 낮추고 특례 유지	특례는 원칙 폐지

○백신의 전액 공비에 의한 무료접종은 3월 말 종료

○홋카이도의 「건강상담센터」는 3월 말 종료하고, 보건소가 대신하여 대응

※국가의 상담창구는 유지

○환자 동향 파악과 공표는 유지